

현장시선



이 신 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최근 3개월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예측했던 미래사회가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화상면접채용, 재택 근무 확산, 온라인 워크숍, 온라인 쇼핑의 증가, 관중 없는 경기 등 랜선을 타고 많은 변화가 진행됐다. 소소한 규칙 하나만 바뀌어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수 많은 변화에도 오히려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켜내며 힘을

온라인 성범죄 예방, 온라인상에서의 배려가 그 시작

모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한 몫을 감당했다. 어려움 가운데도 의료현장에서 함께한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 감사했다.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어 여러 가지 변화 속에도 다시 한 번 위기극복의 진면을 보여줄 때이다. 이런 위기속 많은 변화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IT기술이 발달 할수록 편리성과 신속성은 있으나 디지털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2년 전 미투운동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성추행에 대한 부산시장의 사퇴 기자회견으로 미투사건이 지속되는걸 보면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된 것과는 달리 왜곡된 성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보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전광판에서 본 캠페인 문구다. 최근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

까지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는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사건들을 n번방 사건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지만 n번방, 박사방, 또 다른 n번방도 수없이 존재한다. 하루 평균 30여개의 방이 사라졌다, 생겼다가 반복하며 운영되고, 한 방에는 수천 명의 가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다. 성 착취를 개인적 취향으로 용인하고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텔레그램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 반드시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 모두가 가해자다.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범죄에 대해 더 이

상 용인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해 국가적인 모범이 된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않았음을 모두 경험했다.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안다.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 공간임을 알아야 한다. 소수의 무모한 행동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었던 코로나19처럼, 성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의 노력이 아닌 온 국민이 성인지감수성으로 무장한 자연감시자들이 돼야 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온라인상에서의 함께하는 배려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사설

저렴하다는 LNG가 오히려 비싸다니

제주지역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데 가스 공급단가 분석 결과는 의외여서 실망스럽습니다. 도내 일부지역의 경우 LNG요금에 LPG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항에 제주LNG기지를 준공하고 지난 3월부터 LNG공급에 들어갔습니다. LNG기지 및 배관망 공사에 54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LNG공급 대상은 기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중 약 2만여 세대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도내 15만8000 가구에 LNG를 공급해 보급률을 57%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제주 시내 대단지 아파트 LNG요금이 기존 LPG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LPG생존

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올해 4월 기준 가스가격 분석 결과를 내놴습니다. LPG 사용시 70세대 이상 아파트(33평형)는 LNG보다 연간 3만3430원, 200세대 이상은 연간 8만6840원이 각각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LPG업체의 주장이어서 이같은 분석이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분명 의미있게 받아들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당 공급단가로 보면 LNG가 LPG보다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열량 차이를 환산하면 LNG가 LPG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겁니다. LNG도시가스는 LPG에 비해 열량이 4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한 LNG도시가스가 그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에게 LNG도시가스를 이용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LNG도시가스 요금부과 체계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더욱 박차를 가하자

제주도가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1급)이라는 오명을 7년만에 벗었습니다. 한때 제주 전역 소나무 산림이 재선충병 창궐로 불에 붙게 타는 모습처럼 보였던 과거를 떠올리면 무척 다행스런 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단기간에 나무를 붉게 시들어 말라 죽이는데다 치료약도 없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만큼 무섭습니다. 제주도와 산림청 확인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에 의한 고사목수가 4만6226그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2018년 5월~2019년 4월) 8만3084그루와 비교할 때 44%나 줄었습니다. 제주에 이같은 결과로 인해 방제지점상 고사목수 5만그루 이상인 극심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04년 첫 확인후 2012년까지 무려 6만9000여그루가 사라졌고, 2013년에는 절정에 달해 한해동안만 54만5000여그

루가 고사했습니다. 제주에 이때 극심지역으로 분류됐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수십만 그루가 사라지다 올해 5만 그루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랜기간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사투’를 벌인 결과입니다. 제주도가 전담조직을 신설, 매년 전면적인 방제활동에 나선은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극심지역은 벗어났지만 아직도 한 단계 밑에 ‘심’ 단계이면서 전국적으로도 경북(13만여 그루), 울산(7만여 그루)에 이어 광역시도중 세번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주에서 박멸되는 순간까지 고사목 전수조사 및 이력관리에서부터 우려목 사전제거, 예방주사 확대, 드론예찰강화 등의 방제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소나무 없는 제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려스럽기에 거듭 강조합니다.

열린마당

해녀의 꿈,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설 운영



윤 영 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정책팀장

해녀는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 있는 살아있는 보물로써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해녀를 활용한 북향해녀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해녀문화 홍보마켓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녀문화 홍보마켓에서는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물을 활용한 음식체험, 해녀가 들려주는 스토리텔링과 공연을 통한 제주전통 해녀문화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제주도내 첫 해녀문화 홍보마켓인 ‘해녀의 부엌’은 과거 해녀의 탈의장이나 어판장으로 쓰였던 유흥공간에

음식체험과 해산물 판매, 해녀문화 홍보 등을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현재에는 주 3회, 1일 2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매일 영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간에 해녀부엌에서는 서울 한국무형문화재 공연, 도내 제주세계인의 날 행사 공연과 활 빨소리, 소라간장, 킷축 락배 판매 등을 통해 고향해녀를 위한 부업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부엌인 해녀문화 홍보마켓의 성과에 대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구좌읍 김녕 어촌계를 개설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설을 통해 해녀문화가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분위기가 조성돼 전 세계인이 해녀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희룡 “어버이날 송구하고 감사”

메시지로 마음·인사 전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메시지를 통해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 눈길.
원 지사는 7일 “코로나19로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잔치에 모시지 못해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써주시는 어르신들의 노력이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
이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마늘 수확 인력난 해소 동참

○…제주시가 본격 마늘 수확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연기로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5~6월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
‘농촌 수놓음 운동·일손돕기 창

구’를 시 농정과와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농업인단체와 각급 기관단체, 군부대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수놓음’ 운동도 진행할 계획.
시 관계자는 “이달 고령농·소농·여성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만성질환 생활습관 중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지역내 고혈압·당뇨 전단계 및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전개.
서부보건소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걷기운동 실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합병증 발현을 막기 위해 혈압·혈당을 규칙적으로 체크·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현영종기자

부 고

현재준(오택캐리어장부) 어머니 강영희(前 초등교사·향년 72세)께서 숙환으로 서기 2020년 5월 6일 08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5월 10일(일요일)
- ▶발인일시: 2020년 5월 11일(월요일) 오전 8시
- ▶장례미사: 2020년 5월 11일(월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중문 천주교성당
- ▶장 지: 중문 공동묘지

남 편 현상호
아 들 현재준 며느리 이현정
승 준 박은진
손 자 현 건
주 영
손 녀 현수진

※ 연락처 : 현상호 010-4703-8452
현재준 010-8903-8452
친족대표 현영순 010-2757-338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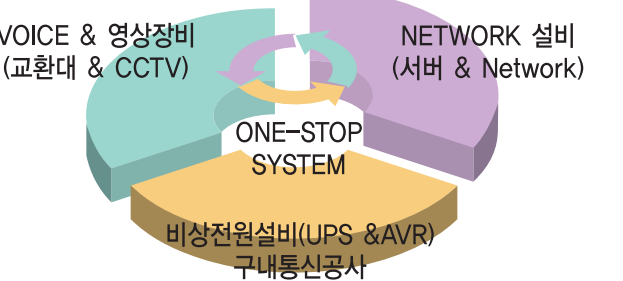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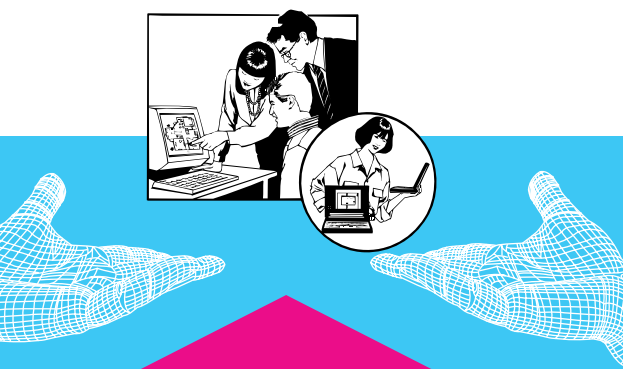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